

# 『승정원일기』를 통해 살펴본 현종에 대한 오수혈 활용

<sup>1</sup>정유용, <sup>2</sup>한봉재, <sup>3</sup>정지훈

<sup>1</sup>사암침법학회, <sup>2</sup>경희토정한의원, <sup>3</sup>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 Application of Five-Transport-points to King Hyeonjong through the 『Seungjeongwon Ilgi』

<sup>1</sup>JUNG Yoo-ong, <sup>2</sup>HAN Bong-jae, <sup>3</sup>JUNG Ji-hun

<sup>1</sup>The society of Saam Acupuncture, <sup>2</sup>Kyung Hee Tojung Korean Medicine Clinic

<sup>3</sup>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Through articles published in the 『Seungjeongwon Ilgi』,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by analyzing how King Hyeonjong used Five-Transport-points. For the use of Five-Transport-points for King Hyeonjong, Five-Transport-points of most meridians were evenly used, except that no Five-Transport-points of Kidney Meridian were used. The use of Five-Transport-points for King Hyeonjong were evenly used for Jung acupoint, Shu acupoint, Hap acupoint. Among them, the use of Jung acupoint was remarkable. The diseases that were most frequently treated by using of Five-Transport-points for King Hyeonjong are ophthalmology, fever, and common cold. The Five-Transport-points were used most for feverish diseases. When performing the procedure using Five-Transport-points for King Hyeonjong, acupuncture and moxibustion were widely used at 95.7:4.3. It can be seen that this is due to the location of Five-Transport-points.

Key words : 『Seungjeongwon Ilgi』, Five-Transport-points, King Hyeonjong

## I. 서론

『승정원일기』의 인터넷상에서의 공개는 연구자들에게 값이 있는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승정원일기』는 『조선왕조실록』보다 상대적으로 왕실 구성원들의 일상을 좀 더 상세히 기술하여 그들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자료이다. 특히, 의학적으로 본다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의 기록은 훌륭한 의안(醫案)이 되기도 하기에

의사학 연구자들에게는 연구를 위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에 2000년대 이후 『승정원일기』에 실려 있는 왕실 의료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해졌다. 『승정원일기』를 통한 연구는 이후 많은 왕들의 건강과 치료에 관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임상의학의 대강에 대한 연구<sup>1)</sup>를 시작으로, 인조<sup>2)</sup>, 효종<sup>3)</sup>, 현종<sup>4)</sup>, 숙종<sup>5)</sup>, 경종<sup>6)</sup>, 영조<sup>7)</sup>, 정조<sup>8)</sup> 등의 진료 및 치병(治病) 기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외에도 장렬왕후<sup>9)</sup>, 인현왕후<sup>10)</sup>, 헌경왕후(혜경궁 홍씨)<sup>11)</sup> 등의 치병 기록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었다.

접수 ▶ 2022년 11월 08일 수정 ▶ 2022년 11월 13일 채택 ▶ 2022년 11월 13일  
교신저자 ▶ 정지훈,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Tel : 033-730-0671 E-mail : albino24@sangji.ac.kr

- 1) 홍세영. 「承政院日記의 臨床醫學 記錄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 2) 김혁규. 「朝鮮 仁祖의 治病記錄에 대한 醫史學的 研究 : 承政院日記의 醫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 3) 강도현. 「承政院日記의 醫案을 통해 살펴본 孝宗의 질병과 사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4) 이상원. 「朝鮮 顯宗의 治病기록에 대한 醫史學的 研究 : 禮訟論爭이 顯宗 疾病에 미친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 5) 고대원. 「朝鮮 肅宗의 治病에 관한 承政院日記의 기록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 6) 김동윤. 「張禧嬪의 죽음이 景宗의 건강에 미친 영향 : 承政院日記 醫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 7) 박해모, 정지훈. 「승정원일기를 통해 살펴본 영조의 송절차 복용에 관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21;34(2):117-126.
- 8) 김동률, 정지훈. 「정조의 膈氣에 대한 연구 -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9;32(3):85-102.
- 9) 박주영. 「조선 장렬왕후의 치병기록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 승정원일기의 의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 10) 방성혜. 「인현왕후의 발병에서 사망까지 승정원일기의 기록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12;18(1):1-11.
- 11) 박영룡. 「혜경궁 홍씨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醫史學的 研究 : 承政院日記 내 用藥기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한편, 상기(上記)의 연구들은 왕실구성원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을 기술하기는 하였으나 한의학의 양대 치료 수단인 탕액과 침구 중에서, 특히 침구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침구와 관련된 연구로는 숙종의 수구(受灸)를 중심으로 한 연구<sup>12)</sup>와 왕실의 아시혈에 대한 연구<sup>13)</sup> 등으로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기 침구치료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현종에게 시술된 오수혈에 대한 연구를 행하고자 한다.

『승정원일기』는 임진왜란 때 화재로 인하여 일부 소실되어 조선왕조 모든 임금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고, 인조가 임금이 된 1623년부터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순종이 일체에 의해 임금 자리에서 물러나는 1910년까지의 기록이 남아 있다. 『승정원일기』에서 임금이 침을 맞았다는 뜻인 ‘수침(受鍼)’을 검색어로 하여 검색하면 총 3,647건의 검색 결과를 찾아낼 수 있다.<sup>14)</sup> 왕들이 침을 맞거나 침구치료의 혈자리를 정하는 기사들이다. 이를 각 임금별로 보면 인조 600회, 효종 154회, 현종 1,426회, 숙종 805회, 경종 58회, 영조 573회, 정조 25회, 순조 5회, 헌종 1회 등이다. 절대적인 횟수도 현종이 제일 많지만, 횟수와 재위기간을 나누어 보더라도 현종이 침 치료를 많이 받은 것은 분명하다. 이는 기연구에서 현종의 질병치료법에 대하여 그 순서가 전체에서 藥이 34.34%, 鍼이 12.57%, 뜸이 6.49% 등으로 밝힌 것<sup>15)</sup>과 비교해 보아도 상당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종이 침자치료를 받은 침처방 내의 많은 혈자리가 오수혈(五輸穴)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다른 임금들에 비하여 침자치료를 월등히 많이 받은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실의 아시혈의 활용에 대하여 밝힌 기연구<sup>16)</sup>에서 확인된 현종의 아시혈 활용 횟수는 11회에 불과하다. 이는 많은 침자치료에서 오수혈을 활용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오수혈을 많이 활용한 이유와 활용한 경락 및 혈자리 등을 살펴보아 오수혈 활용에 대한 초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오수혈을 활용하는 조선의 대표적인 침법인 사암침법과의 연관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II. 본론

오수혈(五輸穴)은 오행(五行) 특성을 띠고 있는 각 경맥(經脈)의 다섯 혈자리로 십이경맥(十二經脈)의 팔꿈치와 무릎 관절 아래에 자리한 정(井), 형(榮), 수(輸), 경(經), 합(合) 5개의 특정한 혈자리를 말한다.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현종의 오수혈 수침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기 위하여 『승정원일기』 사이트를 활용하였다. 『승정원일기』 사이트에서 오수혈의 120개 혈을 검색한 결과 모두 703개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이 중 4개의 기사는 현종에 대한 직접 치료가 아닌 임금의 가족에 대한 치료이기에<sup>17)</sup>, 그 나머지의 기사를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 1. 오수혈의 각 경락별 노출 횟수

『승정원일기』의 현종대 기사에서 각 경락의 오수혈 120개 혈을 검색한 결과 모두 699건의 기사(계)를 찾을 수 있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sup>18)</sup>

표 1. 현종의 오수혈 검색결과

경락	횟수	비율(%)
手太陰肺經	110	15.7
手陽明大腸經	51	7.3
足陽明胃經	176	25.2
足太陰脾經	5	0.7
手少陰心經	35	5.0
手太陽小腸經	41	5.9
足太陽膀胱經	84	12.0
足少陰腎經	0	0
手厥陰心包經	7	1.0
手少陽三焦經	46	6.6
足少陽膽經	51	7.3
足厥陰肝經	93	13.3
계	699	100

12) 김동율, 고대원, 김현경, 차용석, 안상우. 「肅宗의 中腕穴 受灸事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5;28(4):122.

13) 정지훈. 「승정원일기를 통해 살펴본 조선 왕실의 阿是穴 활용」. 한국의사학회지. 2021;34(1):75-82.

14) “승정원일기” 국사편찬위원회 <http://sjw.history.go.kr/main.do> (2022.8.31.)

15) 이상원. 「朝鮮 顯宗의 治病기록에 대한 醫史學的 연구 : 禮訟論爭이 顯宗 疾病에 미친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93.

16) 정지훈. 「승정원일기를 통해 살펴본 조선 왕실의 阿是穴 활용」. 한국의사학회지. 2021;34(1):77.

17) 『승정원일기』 현종 4년 11월 14일 무인 외 3회.

18) 하루에도 몇 개의 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 치료가 되지 않은 기사도 있으며, 『승정원일기』의 특정상 각 기사에 언급되는 것의 횟수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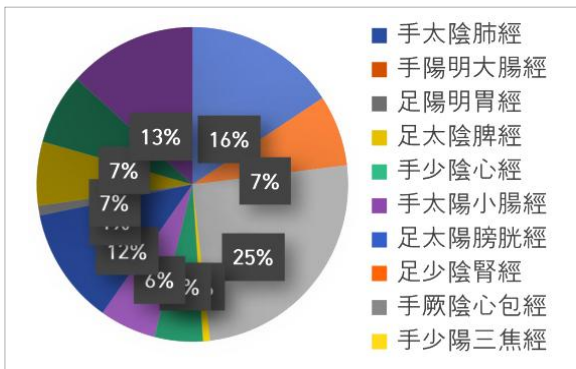


그림 1. 현종의 오수혈 검색결과

위의 <표 1>에서 보다시피 세 경락의 혈들을 제외하고는 9개 경락의 오수혈이 골고루 활용되었다. 그중에서 족양명위경이 가장 많고 수태음폐경의 그다음이며 족궤음간경과 족태양방광경 순이다. 족태음비경과 수궤음심포경은 거의 활용되지 않았으며, 족소음신경의 오수혈은 전혀 활용되지 않았다. 이는 현종이 앓은 질환의 대부분이 몸에 열(熱)을 띠는 질환으로서 족소음신경의 혈들은 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기에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종에 대한 기연구에서 잘 밝혀 놓았는데, 현종의 증후 중에서 많이 앓은 순서대로 몇 가지를 나열하면 眼疾(20.87%), 發熱(8.08%), 瘡(8.04%), 感冒(6.63%) 등으로<sup>19)</sup>, 많은 질환에서 열을 동반하는 질환을 앓았다. 특히, 현종은 眼疾을 다스릴 때 침자치료를 선호했고, 효과가 더 좋았음을 기연구는 보여주고 있다.<sup>20)</sup>

## 2. 각 경락별 오수혈의 출현 빈도

현종에게 사용된 오수혈을 경락별로 분류하여 각 경락의 오수혈을 분석하고 많이 활용된 오수혈에 대한 이유와 배경 등을 유추해 보았다. 12경락의 오수혈을 살펴본 바는 다음과 같다.

### 1) 수태음폐경의 오수혈

표 2. 수태음폐경의 오수혈

오수혈	횟수	비율(%)
少商(井)	6	4.5
魚際(榮)	1	0.9
太淵(俞)	18	16.4
經渠(經)	0	0
尺澤(合)	85	77.3
계	11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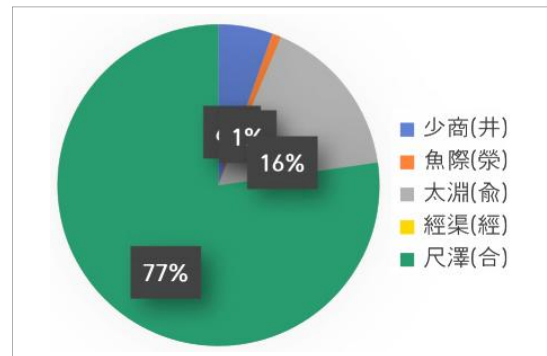


그림 2. 수태음폐경의 오수혈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태음폐경의 경우 합혈인 척택혈의 활용 비율이 가장 높고 태연혈과 소상혈의 순서이며 어제혈과 경거혈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먼저 소상혈의 경우 수태음폐경의 목혈(木穴)을 보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승화강(水升火降)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상열하한(上熱下寒)의 증상 등이 그것으로 안질, 구내염, 중이염, 이명 등 상부의 염증 관련 질환이다. 안질을 늘 달고 살았던 현종에게는 의미 있는 혈이라 할 수 있다.<sup>21)</sup> 태연혈은 수태음폐경의 모혈(母穴)로 토혈(土穴)이다. 또한 폐경의 원혈(原穴)이기도 하여 폐경을 보하는 역할을 한다.<sup>22)</sup> 척택혈은 족양명위경의 내정혈과 함께 많이 사용되었는데, 수혈(水穴)인 두 혈을 동시에 치료함으로써 몸의 열을 끄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sup>23)</sup> 그렇기에 척택혈은 족양명위경의 족삼리혈을 제외하고는 120개의 오수혈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활용된 혈이다.

### 2) 수양명대장경의 오수혈

19) 이상원. 「朝鮮 顯宗의 治病기록에 대한 醫史學的 연구 : 禮訟論爭이 顯宗 疾病에 미친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93.

20) 이상원. 「朝鮮 顯宗의 治病기록에 대한 醫史學的 연구 : 禮訟論爭이 顯宗 疾病에 미친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94.

21) 『승정원일기』 현종 5년 4월 20일 임자 외 5회.

22) 『승정원일기』 현종 2년 3월 11일 경신 외 17회.

23) 『승정원일기』 현종 1년 6월 18일 신축 외 84회.

표 3. 수양명대장경의 오수혈

오수혈	횟수	비율(%)
商陽(井)	39	76.5
二間(榮)	0	0
三間(兪)	3	5.9
陽谿(經)	5	9.8
曲池(合)	4	7.8
계	5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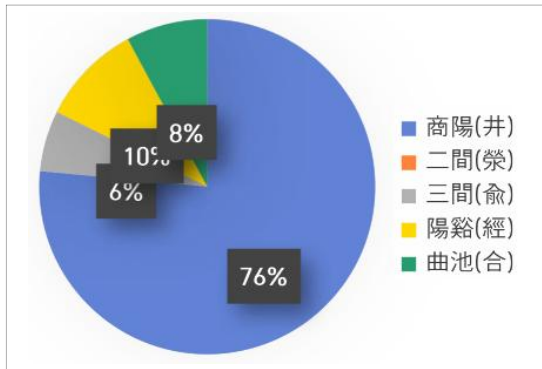


그림 3. 수양명대장경의 오수혈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양명대장경의 경우 정혈(井穴)인 상양혈의 활용 비율이 가장 높고 양계혈, 곡지혈, 삼간혈의 순으로 활용되었다.

상양혈은 족태양방광경의 지음혈과 함께 쓰이면 방광정격(膀胱正格)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는 눈을 시원하게 하는 주치(主治)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다른 혈들도 많이 섞여 있지만 상양혈과 지음혈을 동시에 자침하는 경우는 많이 나타난다.<sup>24)</sup> 삼간혈은 수양명대장경의 목혈(木穴)로서 비습(肥濕)한 사람의 감기에 활용할 수 있다. 현종의 체형을 알 수는 없지만 감모해수(感冒咳嗽)의 증상에 삼간혈을 활용하였다.<sup>25)</sup> 양계혈은 수양명대장경의 화혈(火穴)로서 복부를 따뜻하게 할 수 있다.<sup>26)</sup> 곡지혈은 주로 팔뚝의 동통이 있을 때 뜸을 뜨는 데 많이 활용하였는데, 침은 놓지 않고 뜸만 뜬 기록이 있다.<sup>27)</sup>

### 3) 족양명위경의 오수혈

24) 『승정원일기』 현종 1년 2월 7일 임진 외 32회.

25) 『승정원일기』 현종 7년 3월 11일 신묘.

26) 『승정원일기』 현종 7년 11월 14일 경인 외 4회.

27) 『승정원일기』 현종 13년 8월 11일 계축 외 3회.

28) 『승정원일기』 현종 6년 2월 12일 경오 외 33회.

29) 『승정원일기』 현종 1년 6월 9일 임진 외 11회.

30) 『승정원일기』 현종 즉위년 6월 23일 입자 외 9회.

표 4. 족양명위경의 오수혈

오수혈	횟수	비율(%)
厲兌(井)	34	19.3
內庭(榮)	25	14.2
陷谷(兪)	0	0
解谿(經)	10	5.7
足三里(合)	107	60.8
계	17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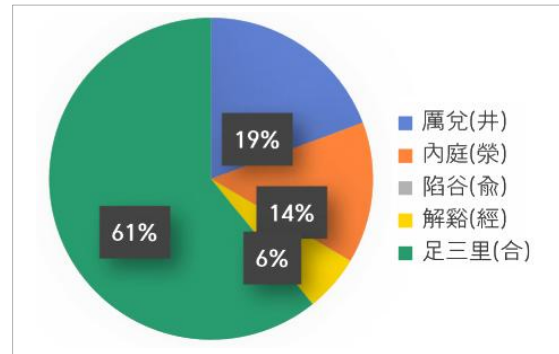


그림 4. 족양명위경의 오수혈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족양명위경의 경우 합혈인 족삼리혈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으며 여태혈, 내정혈, 해계혈 등의 순서로 활용되었다.

먼저 여태혈은 수부(手部)에 위치한 수양명대장경의 상양혈과 함께 많이 활용되었다. 사암침법(舍巖鍼法)의 의미로 보자면 상양혈과 여태혈은 보사(補瀉)를 반대로 하면 각각 위정격과 위승격이 된다.<sup>28)</sup> 내정혈은 족양명위경의 수혈(水穴)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수태음폐경의 수혈인 척택혈과 함께 많이 활용되었는데, 이는 몸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다.<sup>29)</sup> 안질(眼疾)에 내정혈과 척택혈을 응용한 것은 사암침법의 일종으로 현재의 삼부침법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다. 해계혈 또한 안질을 치료할 목적으로 다른 혈들과 함께 사용되었다.<sup>30)</sup> 한편으로는 족양명위경의 화혈(火穴)로 위장의 열을 나게 할 수 있다. 밥맛이 좋아져서 입금의 기력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되었을 것이다. 족삼리혈은 120개의 오수혈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혈이다. 이는 침자도 많이 하였지만 다른 오수혈에 비해서 뜸을 뜨는 시술을 월등하게 많이 행하였기 때

문이다.<sup>31)</sup> 또한 사암침법의 의미로 보자면 족삼리혈과 위중혈은 보사(補瀉)를 반대로 하면 각각 방광정격과 방광승격의 의미가 된다.<sup>32)</sup>

#### 4) 족태음비경의 오수혈

표 5. 족태음비경의 오수혈

오수혈	횟수	비율(%)
隱白(井)	4	80
大都(榮)	0	0
太白(兪)	1	20
商丘(經)	0	0
陰陵泉(合)	0	0
계	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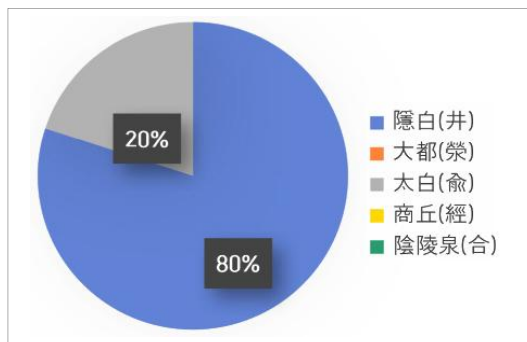


그림 5. 족태음비경의 오수혈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족태음비경의 오수혈들은 많이 활용되지 않았는데, 그중에서 정혈(井穴)인 은백혈이 다소 활용되었다. 은백혈은 족태음비경의 목혈(木穴)로서 이를 보하여 소화기의 기운을 올려 줄 수 있다.<sup>33)</sup>

#### 5) 수소음심경의 오수혈

표 6. 수소음심경의 오수혈

오수혈	횟수	비율(%)
少衝(井)	0	0
少府(榮)	0	0
神門(兪)	35	100
靈道(經)	0	0
少海(合)	0	0
계	3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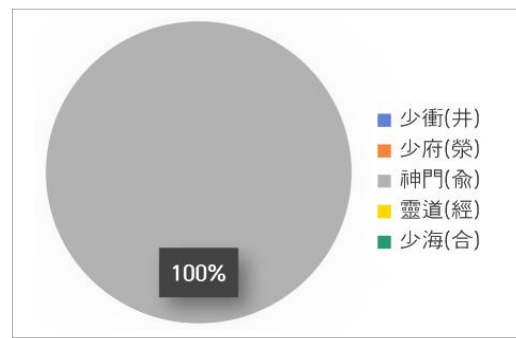


그림 6. 수소음심경의 오수혈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소음심경의 오수혈은 다섯 개의 혈중에서 신문혈만이 사용되었다.

신문혈 또한 안질 등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여타의 많은 혈과 함께 자침되었다.<sup>34)</sup> 또한 신문혈은 수소음심경의 원혈(原穴)로 심경을 보호하는 의미로 활용되어 심신의 안정을 도모한 것으로 보여진다.

#### 6) 수태양소장경의 오수혈

표 7. 수태양소장경의 오수혈

오수혈	횟수	비율(%)
少澤(井)	18	43.9
前谷(榮)	5	12.2
後谿(兪)	14	34.1
陽谷(經)	2	4.9
小海(合)	2	4.9
계	4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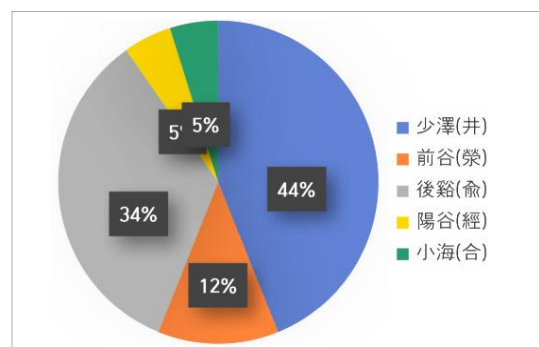


그림 7. 수태양소장경의 오수혈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태양소장경의 오수혈 중

31) 『승정원일기』 현종 1년 2월 3일 무자 외 17회.

32) 『승정원일기』 현종 1년 9월 18일 경오.

33) 『승정원일기』 현종 8년 2월 28일 계유 외 3회.

34) 『승정원일기』 현종 1년 2월 3일 무자 외 34회.

에서는 소택혈과 후계혈이 많이 활용되었고 전곡혈, 양계혈, 소해혈 등의 순이다.

소택혈은 수태양소장경의 금혈(金穴)로 스트레스로 인한 열감(熱感)을 내릴 수 있다.<sup>35)</sup> 후계혈과 족소양담경의 임읍혈은 소장정격(小腸正格)에서 보(補)하는 혈이다. 후계혈을 치료하여 혈을 보충하면 혈열(血熱)을 내릴 수 있다.<sup>36)</sup>

### 7) 족태양방광경의 오수혈

표 8. 족태양방광경의 오수혈

오수혈	횟수	비율(%)
至陰(井)	36	42.9
通谷(榮)	2	2.4
束骨(兪)	0	0
崑崙(經)	41	48.8
委中(合)	5	5.9
계	8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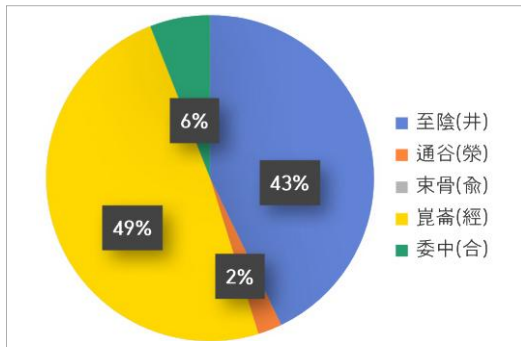


그림 8. 족태양방광경의 오수혈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족태양방광경의 오수혈 중에서는 곤륜혈과 지음혈을 압도적으로 많이 활용하였다. 위중혈과 통곡혈이 그다음 순이다.

지음혈은 족태양방광경의 금혈(金穴)로서 습열로 인한 안질 등에 효과적이다.<sup>37)</sup> 곤륜혈은 족태양방광경의 화혈(火穴)로서 복부를 따뜻하게 할 수 있다.<sup>38)</sup> 위중혈은 위에서 족양명위경의 족삼리혈을 언급하며 서술한 대로 두 혈은 방광정격과 방광승격의 의미가 있다. 특히, 삼리혈과 위중혈을 자침할 때에는 원리침(圓利鍼)을 써야 한다고 침의 종류를 특정하고 있다.<sup>39)</sup>

35) 『승정원일기』 현종 7년 3월 3일 계미 외 17회.

36) 『승정원일기』 현종 5년 11월 6일 계사 외 13회.

37) 『승정원일기』 현종 2년 3월 11일 경신 외 35회.

38) 『승정원일기』 현종 1년 2월 4일 기축 외 40회.

39) 『승정원일기』 현종 1년 9월 18일 경오.

### 8) 족소음신경의 오수혈

표 9. 족소음신경의 오수혈

오수혈	횟수	비율(%)
湧泉(井)	0	0
然谷(榮)	0	0
太谿(兪)	0	0
復溜(經)	0	0
陰谷(合)	0	0
계	0	100



그림 9. 족소음신경의 오수혈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족소음신경의 오수혈 중에서 현종에게 시술된 혈은 하나도 없다. 상당히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상술한 것처럼 족소음신경의 자침이 체내에 열을 조장할 수 있고, 현종의 대부분의 질환이 몸에 열을 띠는 것이기에 그러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하여 내의원의 의관들이 경락의 특성과 오수혈의 특징을 잘 파악하여 정교한 침법을 구사했음을 알 수 있다.

### 9) 수궐음심포경의 오수혈

표 10. 수궐음심포경의 오수혈

오수혈	횟수	비율(%)
中衝(井)	1	14.3
勞宮(榮)	0	0
大陵(兪)	5	71.4
間使(經)	1	14.3
曲澤(合)	0	0
계	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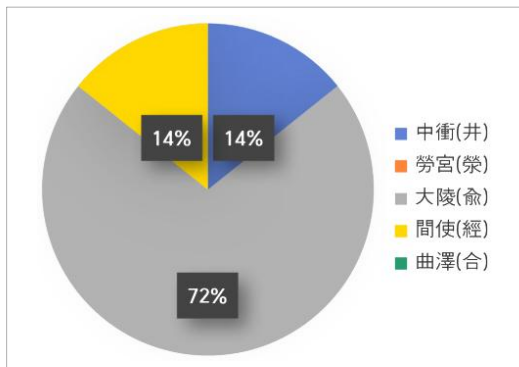


그림 10. 수혈음심포경의 오수혈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혈음심포경의 오수혈 중에서는 많은 혈이 활용되지 않았지만 그중에서 대릉혈의 활용이 두드러진다.

대릉혈과 태백혈은 심포승격(心包勝格)에 해당한다. 대릉혈과 태백혈을 사(瀉)하면 심포경을 사하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sup>40)</sup>

#### 10) 수소양삼초경의 오수혈

표 11. 수소양삼초경의 오수혈

오수혈	횟수	비율 (%)
關衝(井)	12	26.1
液門(榮)	5	10.9
中渚(俞)	26	56.5
支溝(經)	0	0
天井(合)	3	6.5
계	4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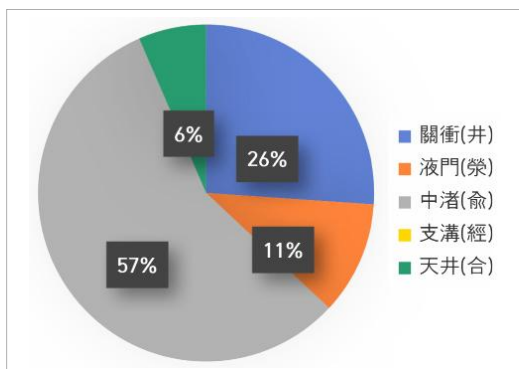


그림 11. 수소양삼초경의 오수혈

40) 『승정원일기』 현종 8년 9월 3일 갑진 외 4회.  
41) 『승정원일기』 현종 4년 11월 14일 갑진 외 11회.  
42) 『승정원일기』 현종 1년 2월 16일 신축 외 4회.  
43) 『승정원일기』 현종 6년 2월 7일 갑자 외 21회.  
44) 『승정원일기』 현종 7년 11월 14일 경인 외 10회.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소양삼초경의 오수혈 중에서는 중저혈과 관충혈을 많이 활용하였다.

관충혈은 수소양삼초경의 금혈(金穴)로서 비습한 사람의 외감증상을 발산시켜 치료할 수 있다.<sup>41)</sup> 액문혈은 삼초경의 수혈(水穴)로서 삼초의 상화(相火)를 내려 열로 인한 안질을 치료할 수 있다.<sup>42)</sup>

#### 11) 족소양담경의 오수혈

표 12. 족소양담경의 오수혈

오수혈	횟수	비율 (%)
竅陰(井)	22	43.1
俠谿(榮)	11	21.6
臨泣(俞)	16	31.4
陽輔(經)	2	3.9
陽陵泉(合)	0	0
계	5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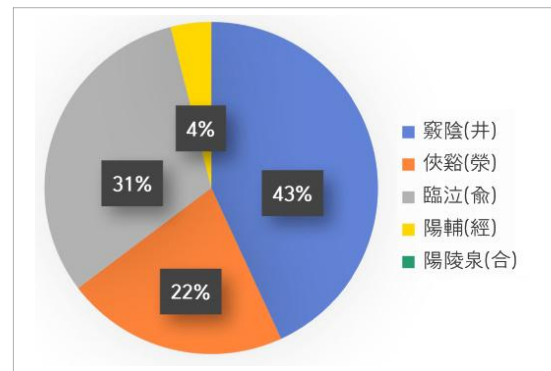


그림 12. 족소양담경의 오수혈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족소양담경의 오수혈 중에서는 규음혈, 임읍혈, 협계혈 등의 순으로 활용되었다.

규음혈은 족소양담경의 금혈(金穴)로서 금극목(金克木)하는 기전으로 풍기(風氣)를 내릴 수 있으며, 염증과 같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또한 상양혈과 규음혈은 담승격의 의미로 상화를 내릴 수 있다.<sup>43)</sup> 협계혈은 족소양담경의 수혈(水穴)로서 담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sup>44)</sup> 임읍혈은 족소양담경의 목혈(木穴)로서 기를 올릴 수 있기에 허증에 쓸 수 있다.<sup>45)</sup>

## 12) 족궤음간경의 오수혈

표 13. 족궤음간경의 오수혈

오수혈	횟수	비율(%)
大敦(井)	6	6.5
行間(榮)	26	28.0
太衝(兪)	58	62.4
中封(經)	3	3.2
曲泉(合)	0	0
계	9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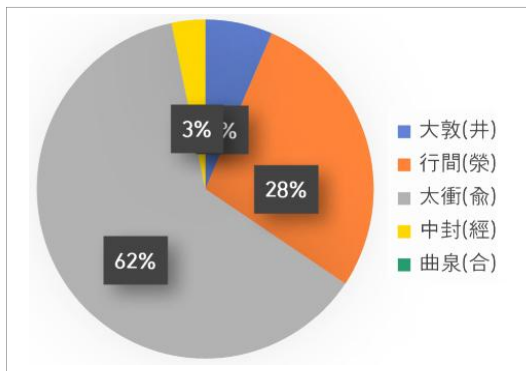


그림 13. 족궤음간경의 오수혈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족궤음간경의 오수혈 중에서는 태충혈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고, 행간혈을 그다음으로 활용하였다.

대돈혈은 안질의 치료를 위해 간의 기운을 올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sup>46)</sup> 행간혈은 안질을 치료함에 간의 화혈(火穴)인 행간혈을 사하여 화기를 내리는 역할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sup>47)</sup> 태충혈은 합곡혈과 함께 사관(四關)혈로 불린다. 종기나 안질에 태충혈을 합곡혈과 늘 함께 자침함으로써 소화기를 조절하는 동시에 간을 보하는 의미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sup>48)</sup>

## 3. 오수혈의 정형수경합의 비율

현종에게 활용된 오수혈(五兪穴)을 정혈(井穴), 형혈(榮穴), 수혈(輸穴), 경혈(經穴), 합혈(合穴)의 비율이 어떠한

살펴보았다. 그 횟수와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14. 정형수경합의 비율

오수혈	횟수	비율(%)
정혈(井穴)	178	25.5
형혈(榮穴)	75	10.7
수혈(輸穴)	176	25.2
경혈(經穴)	64	9.2
합혈(合穴)	206	29.5
계	69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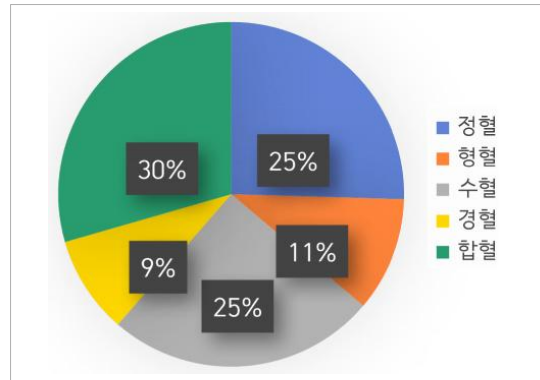


그림 14. 정형수경합의 비율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혈, 정혈, 수혈은 비슷한 비율로 많이 활용되었으며, 형혈과 경혈은 많이 활용되지는 않았다.

『영추·구침십이원』에서 “경맥의 기(氣)가 솟아 나오는 곳이 정(井)이고, 모여드는 곳이 형(榮)이고, 쏟아 나가는 곳이 수(輸)이고, 지나가는 곳이 경(經)이고, 흘러 스며드는 곳이 합(合)이다.”<sup>49)</sup>라고 하였고, 『난경·육십팔난』에서는 “정혈(井穴)은 명치 밑이 더부룩한 병증을 다스리고, 형혈(榮穴)은 신열(身熱)을 다스리고, 수혈(輸穴)은 몸이 무겁고 마디가 아픈 병증을 다스리고, 경혈(經穴)은 기침, 천식과 외감한열(外感寒熱)을 다스리고, 합혈(合穴)은 기가 거스르며 설사하는 병증을 다스린다.”<sup>50)</sup>라고 하였다. 이는 오수혈이 질병 치료에 있어서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승정원일기』의 현종에게 활용된 오수혈들은 단독으로 쓰이지는 않고 여러 혈들이 섞여 있는 침처방을

45) 『승정원일기』 현종 1년 2월 3일 무자 외 15회.

46) 『승정원일기』 현종 7년 3월 3일 계미 외 5회.

47) 『승정원일기』 현종 2년 2월 20일 경자 외 25회.

48) 『승정원일기』 현종 1년 2월 5일 경인 외 57회.

49) 『靈樞·九鍼十二原』 所出爲井 所溜爲榮 所注爲輸 所行爲經 所入爲合.

50) 『難經·六十八難』 井主心下滿, 榮主身熱, 兪主體重節痛, 經主喘咳寒熱, 合主逆氣而泄.



이루고 있다. 『내경』과 『난경』에 서술된 정형수경합의 원칙에 부합하면서 취혈하기 쉬운 혈들을 중심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혈(井穴)은 자침 시에 상당한 통증이 있는 혈이다. 그럼에도 많이 활용된 이유는 정혈은 손발 끝에 위치하여 설열(泄熱)하는 의미가 있으며, 부작용이 적기 때문일 것이다. 현종의 질환이 대부분 열증인 것으로 보아 침으로 열증을 제거하는 의미에서 정혈을 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술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정혈을 취혈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상당한 의학지식을 지니고 있던 현종<sup>51)</sup>에게 빠른 효과를 내는 데는 오수혈의 활용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여겨진다. 지엄한 왕은 치료해야겠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위취혈(遠位取穴)을 위주로 행한 내의원 의관들의 고뇌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 4. 오수혈의 침과 뜸의 비율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오수혈에는 침과 뜸이 모두 시술되었는데, 그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5. 침과 뜸의 시술 비율

구분	횟수	비율(%)
침	669	95.7
뜸	30	4.3
계	69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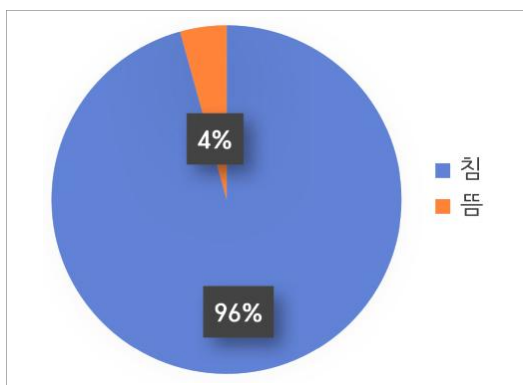


그림 15. 침과 뜸의 시술 비율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수혈에 침을 놓은 횟수

는 669회, 뜸을 뜬 횟수는 30회이다. 그중에서 족양명위경이 19회로 가장 많다. 족양명위경의 족삼리혈에 뜸을 많이 시술한 결과이다.<sup>52)</sup> 상술한 대로 현종은 평생 병을 달고 살았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몸이 허약했으며 특히 소화기 질환과 눈병, 감기를 자주 앓았다. 족삼리혈은 복통, 설사, 변비, 구토 등 소화기 질환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며 오래 뜸을 뜨면 장수한다고 알려져 있는 경혈이다. 수양명대장경의 곡지혈은 네 차례 시술하였는데, 모두 뜸을 활용하였다.<sup>53)</sup> 곡지혈은 수양명대장경의 합혈로 수태음폐경과 표리가 되어 상지(上肢)의 질환과 피부병, 중풍, 인후병 등에 활용된다. 오수혈 중 합혈인 족삼리혈과 곡지혈에 뜸을 뜬 것은 현종이 앓았던 병을 치료하기 위한 필수혈이었을 것이다. 특히, 오수혈의 특징상 혈위가 모두 손끝과 발끝에 위치하기에 뜸을 부착시켜 시술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기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 Ⅲ. 고찰

오수혈은 인체의 사지말단에 위치하는 임상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혈자리들이다. 그 유래가 오래된 오수혈은 조선시대 왕실에서도 그 활용도가 높았음을 『승정원일기』를 고찰함으로써 알 수 있었다. 특히, 병약하였던 현종에 대한 오수혈을 활용한 병증, 치료과정, 결과 등을 상세히 기록한 『승정원일기』의 내용은 훌륭한 의안(醫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의안은 임상기록으로서 후학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사암침법은 오수혈을 이용한 침법으로 연구에 의하면 『동의보감』의 침구이론과 『침구경험방』의 임상경험에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된다. 『승정원일기』의 기사에서 현종에 대한 침치료 혈자리를 분석한 결과 오수혈의 사용 빈도가 높았다. 사용한 침 처방의 내용은 사암침법처럼 정형화되고 압축적인 4개의 혈자리는 아니지만 임상에서 오수혈을 많이 사용하면서 오수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현종에게 활용된 침처방에 섞여 있는 것들 중에는 방광정격, 소장정격, 담승격 등이 들어있다 할 수 있는데, 이를 완전한 현대적인 사암침법의 형태라고 보기는

51) 이상원. 「朝鮮 顯宗의 治病기록에 대한 醫史學的 연구 : 禮訟論爭이 顯宗 疾病에 미친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11.

52) 『승정원일기』 현종 1년 2월 3일 무자 외 17회.

53) 『승정원일기』 현종 13년 8월 11일 계축 외 3회.

어려울 듯하다.

본 연구는 『승정원일기』의 현종대에 나타난 오수혈 자침에 대한 초보적이면서도 정량적(定量的)인 연구에 치우친 점이 있는 바, 이후에 다른 임금을 포함한 좀 더 정성적(定性的)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IV. 결론

『승정원일기』의 현종대에 실린 기사를 분석하여 오수혈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현종에 대한 오수혈의 활용은 열두 개의 경락 중 세 경락의 혈들을 제외하고는 아홉 개 경락의 오수혈이 골고루 활용되었다. 족소음신경의 오수혈은 한 혈도 활용되지 않았다.

현종에 대한 오수혈의 활용은 정형수경합혈 중 정혈, 수혈, 합혈이 고르게 활용되었으며, 그중에서 정혈의 활용이 두드러진다.

현종에 대한 오수혈을 활용함에 많이 치료한 병증은 안질, 발열, 감모 등이다. 대부분의 열성질환에 오수혈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종에 대하여 오수혈을 활용하여 시술할 때 침술과 구술의 비율은 95.7:4.3 정도로 침술을 많이 활용하였다. 이는 오수혈의 위치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1. 홍세영. 「承政院日記의 臨床醫學 記錄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2. 김혁규. 「朝鮮 仁祖의 治病記錄에 대한 醫史學的 研究 : 承政院日記의 醫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3. 강도현. 「承政院日記의 醫案을 통해 살펴본 孝宗의 질병과 사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4. 이상원. 「朝鮮 顯宗의 治病기록에 대한 醫史學的 研究 : 禮訟論爭이 顯宗 疾病에 미친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5. 고대원. 「朝鮮 肅宗의 治病에 관한 承政院日記의 기록

-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6. 김동윤. 「張禧嬪의 죽음이 景宗의 건강에 미친 영향 : 承政院日記 醫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7. 박해모, 정지훈. 「승정원일기를 통해 살펴본 영조의 송절차 복용에 관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21;34(2):117-126.
8. 김동률, 정지훈. 「정조의 膈氣에 대한 연구 -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대한한의학회지. 2019;32(3):85-102.
9. 박주영. 「조선 장렬왕후의 치병기록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 : 승정원일기의 의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10. 방성혜. 「인현왕후의 발병에서 사망까지 승정원일기의 기록 연구」. 한국한의학회지. 2012;18(1):1-11.
11. 광영룡. 「혜경궁 홍씨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醫史學的 研究 : 承政院日記 내 用藥기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12. 김동윤, 고대원, 김현경, 차웅석, 안상우. 「肅宗의 中脘穴 受灸事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5;28(4):121-137.
13. 정지훈. 「승정원일기를 통해 살펴본 조선 왕실의 阿是穴 활용」. 한국의사학회지. 2021;34(1):75-82.
14. “승정원일기” 국사편찬위원회 <http://sjw.history.go.kr> (2022.8.31.)